‘천수천족관음’ 조용한 인기몰이

日 관음하우스, 나가하마시 홍보차원서 전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도 그 작례가 극히 드문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 그 독특한 모습이 도쿄에 마련된 특별갤러리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다. 2월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갤러리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의 모습을 보도했다.

도쿄 시내 우에노(上野)구에 마련된 불상 갤러리, ‘비와호 나가하마 관음하우스’는 일본 사가현의 나가하마(長浜)시가 4년 전 개설한 특별 전시장이다. 시 측은 “동 지역은 ‘관음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음신앙이 성행했다. ‘도쿄에 있는 나가하마의 관음당’이라는 콘셉트로 갤러리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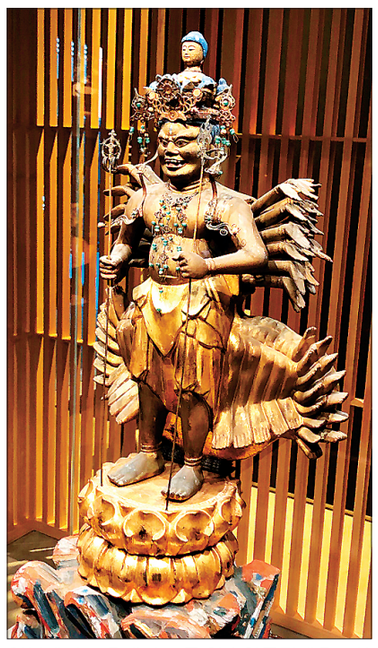
나가하마시는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琵琶)호의 북쪽에 소재한 도시. 7세기경 불교문화가 자리 잡고, 10세기경에는 호수에 근접한 히에이산(比叡山)의 영향으로 천태종이 성행했다. 특히 비와호 안의 섬인 치쿠부시마(竹生島)가 관음성지로 유명해지면서 관음신앙이 뿌리 깊게 박혔다. 현재 시내에만 130여 구의 문화재급 관세음보살상이 점재해 있다.

관음하우스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갤러리 측은 “지난 2014년 도쿄예술대학의 미술관에서 나가하마시의 불상특별전을 개최했다.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1만9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후 2016년

관음신앙이 깊은 나가하마시
시내에만 관음상 130구 보유
천수천족관음 재전시 요청에
갤러리에 관음상 다시 선보여

도에 개최한 2차 전시회에선 3만여 명이 방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관음의 고장’을 모티프로 지역문화를 알리고자 2016년 이 갤러리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약 4년간의 개관기간동안 다녀간 관람객은 6만여 명. 2개월씩 교대식으로 지금까지 전시된 관세음보살상은 총 18구다. 불상의 전시뿐만 아니라 전문가 관람 설명이나 미니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도 같이 열렸다. 현재 화제를 끌고 있는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은 두 번째 전시다. 이전의 전시에 다녀간 관람객들의 재전시 요구에 따라 다시 공개됐다.


일본에서도 유례가 드문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 사진출처=트위터

전시 중인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은 17세기경 조성됐으며, 41㎝ 높이의 목조불상이다. 이름은 천수천족이지만 실제로는 40족 40수의 손과 발이 묘사되어 있다. 분노한 얼굴에 세 눈을 가진 상호, 머리에는 11면 관세음보살과 유사하게 9면의 보살면이 붙어있으며 정상에는 여래면이 조각돼 있다.

불상을 소장 중인 쇼묘지(正妙寺) 측은 “천수천족관음에 관한 기술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3세기 초와 중기의 천태밀교에 관한 주석서”라며 이 도상이 천태밀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한 불상임에도 이에 관한 의궤나 경전이 전하지 않기에 정확히 어떠한 신앙을 나타내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나가하마시는 관음하우스를 오는 10월에 폐관한다고 밝혔다. 시 측은 “도시 브랜드 재구축의 상징으로 관음신앙 문화를 전하는데 일정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폐관의 이유를 말했다. 도쿄예술대학의 사츠마 마사토 교수는 “비와호를 감싸는 온화하고 독특한 풍토를 담아낸 듯한 불상들이 특징이다. 민중이 정성을 들여 모신 불상들인 까닭에 대가람에 모셔진 불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나가하마의 관음상들을 평가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쾌유 기원”

스리랑카불교, 곳곳서 전통의식 ‘삐릿’ 거행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중국과 합동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을 극복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불교 의식을 곳곳에서 거행하고 있다.

뉴스인아시아(News in Asia)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고대 수도 아누라다푸라에 위치한 아바야기리 바라하(Abhayagirivihara, 無畏山寺) 사찰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삐릿(pirith)’ 의식을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에 치렀다. 삐릿은 불운이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길 염원하며 경전을 암송하는 불교의 전통 관습이다.

해당 사원은 중국불교의 고승이자 학자인 법현(Faxian, 337-422) 스님이 약 1600년 전 다르마를 공부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불자들은 주지인 칼란치예 라트나시리 테로 스님의 집전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의 쾌유와 사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테로 스님은 우한에서 3년간 공부했던 인연이 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스리랑카의 고대 도시인 칸디(Kandy) 인근 산 중턱에 위치한 넬리갈라 국제 불교센터(the Nelligala International Buddhist Center)도 삐릿 의식을 거행했다. 스리랑카-중국 불교우호협회(SLCBFA)로부터 초청 받은 10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했다.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삐릿’ 의식을 거행하는 모습.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아지스 다르마와데나 SLCBFA 부대표는 “현재 중국은 각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자들의 빠른 회복을 빌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면서 “나는 중국 정부를 비롯한 각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스리랑카의 상업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19세기 사찰 갠가라마야에서 열린 스리랑카-중국 언론인 포럼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교 의식이 마련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전일본불교회 “사형제 반대한 적 없다”

사형제 반대한다는 보도에
전일본불교회 ‘오보’ 규정
국민 80% 사형제에 찬성
정토진종 오타니파만 반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의 존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대 불교협회가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오보를 정정하고 나섰다. 2월 15일 일본의 ‘데일리 신쵸’는 ‘전일본불교회’의 공식 입장을 보도했다.

지난 1월 17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일본국민의 80.8%가 사형제 존속을 지지하는 것을 밝혀졌다. 한편 이 결과에 대해 1월 30일 일본의 조간신문들은 “일본 최대 불교협회인 ‘전일본불교회(이하 불교회)’가 사형제도를 반대했다”고 일제히 특집 보도했다. 조간신문들에 따르면 “1월 30일 열린 불교회 이사회는 ‘사형제는 불살생의 가르침과 모순’이는 이유로 사형제도 반대를 결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할 것이라 밝혔다. 조직전체가 사형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전일본불교회 중 유일하게 사형제 폐지를 공식으로 지지한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본산, 동본원사 전경. 사진출처=야후뉴스

불교회는 일본 전국의 불교협회들을 비롯해 주요한 59개 종단, 106개 단체가 가맹한 일본 최대의 불교협회다. 종교계로는 무시할 수 없는 단체가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데에 사형제의 존폐가 다시금 화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불교회는 2월 15일 홍보담당자의 명의로 “전일본불교회는 사형제 반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교회 측은 “해당기사를 쓴 기자는 이전부터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를 다수 게재한 바 있다. 1월 30일에 이사회가 열린 것은 맞지만, 사형제 반대에 관한 안건은 최초부터 올라오지 않았기에 기자회견이 열릴 계획도 없다”고 오보를 정정했다. 이어서 불교회는 “단, 당 회의 사회 · 인권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일 이사장 앞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정리해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불교회 내부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불교회에 가맹한 주요 종단들 가운데 사형제 제도 폐지를 명확히 공표한 종단은 정토진종 오타니파(大谷派) 뿐이며, 대부분의 종단들이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의논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토진종 오파니파는 2차 대전 이후 전쟁과 인권에 대한 문제에 종단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에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오보에 대해 “해당 기사는 취재 끝에 게재된 기사”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정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스님들, 9000㎞ 순례 중단 위기

인도 라자스탄주서 통행금지 조치 받아

태국에서 프랑스를 향해 평화 순례길에 올랐던 13명의 스님들이 인도 라자스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힌두스탄타임즈는 2월 17일(현지시간) “태국 승려들이 라자스탄주(州)의 바머 지구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멈췄다”며 “이들은 바머의 국경 지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해 당국으로부터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스님들은 파키스탄 입국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머 지구는 인도 내에서도 외국인 입국이 극히 제한되는 구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님들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머 지역 경찰 관계자는 “13명의 태국 승려들이 평화 순례 중이며, 인도-파키스탄 간 입국이 가능한 단일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그들의 여행 경로에는 구체적인 여행 경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태국에서 출발해 프랑스까지 평화순례를 진행 중인 스님들.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그러면서 그는 “만약 태국 승려들이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해 온다면 우리는 통행을 허락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스님들의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순례단장인 프라 수담 나티통 스님은 현지 언론들에게 “이미 2019년 태국에서 뉴욕까지 1만㎞ 평화 여행을 마쳤다. 이번에는 태국에서 프랑스까지 유사한 행로를 걷고 있다”며 “약 9000㎞를 걸을 계획”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GmSoft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